사회공헌, 광주은행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김한 광주은행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Around the World KJ card 전시회 개관에서 전시실을 둘러보고 있다.

1기 다문화가정문화교실 .

지역 어린이 멘토링 봉사활동

지역인재 채용·국제행사 후원 등 반세기를 지역과 함께
당기순이익 10% 이상 지역 환원 … 향토은행 책무 다해
임직원들 복지시설 등 이웃들에 봉사·다문화가정 지원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결손가정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올해 국내 금융시장은 대내외 악재로 요동쳤다. 계좌이동제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새로운 금융 제도 도입으로 금융권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졌다. 여기에 초저금리 시대가 고착화 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고심도 깊어졌다. 금이나 원유 등 다양한 고수익 투자처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고객들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금융권 무한경쟁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적자생존의 시대에서 은행권들은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개발하는 등 생존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은 올 상반기 '비대면 채널 확대' 와 '주거래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등을 통해 존립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들은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지역적, 규모적 한계에서 벗어나 영업망 다변화와 경영 악화에 선재적 대비를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지경이다.

이처럼 어려운 금융환경에서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은 지난 48년 동안 지역은행으로서 U대회, 광주비엔날레, 여수엑스포 등 굵직한 지역 개최 국제행사 공식 후원과 함께 90% 이상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등 향토은행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기순이익 대비 10% 이상을 지역에 환원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이는 대구은행, 경남은행 ,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 여타 지방은행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더 좋은 은행"이라는 사회공헌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역사랑봉사단'을 만들어 임직원 전체가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은 '진정성'

광주은행 임직원은 연 4회 이상 복지시설 및 결손가정,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과 인연을 맺고 김장나눔, 도시락 배달, 삼계탕 무료배식 봉사활동 등 참여형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명절에는 사랑의 행복꾸러미 포장행사를 통해 1500여개의 생필품 상자를 만들어 지역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해 선물하고 있다.

또한, 2만여명에 달하는 지역의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전통시장 장보기,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다문화여성 문화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실천하고 있으며 사랑의 방한복 행사, 희망나눔 바자회 행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다채롭게 펼쳐나가고 있다.

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사옥

어린이들 미래를 생각한다

특히 광주은행은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에서 벗어나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결손가정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저소득가정이나 노후된 아동보육시설을 찾아 공부방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형 멘토링 봉사활동, 신학기 결손가정 교복후원과 더불어 가정환경이 어려운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번 인연을 맺은 지역 어린이들과의 만남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일회성을 벗어나 지역 어린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다양한 체험 기회를 마련할지 고민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연간 어린이 50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박물관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점 1층 원더랜드 체험관을 무료로 개관하여 3개월간 1만7000여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아동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여기에 메세나 나눔활동으로 지역 어린이 300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로 유명 어린이 뮤지컬을 본점에서 무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라운드 더 월드(세계여행) 문화체험관을 개방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단기적인 금전적 기부보다 지역의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과 후원을 위주로 한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이영기 사회공헌부장은 "지난 48년동안 한 마음으로 사랑해준 지역민에게 보답하는 길은 건전한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다"며 "단순한 기부와 봉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다문화 가정등 소외받는 구성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